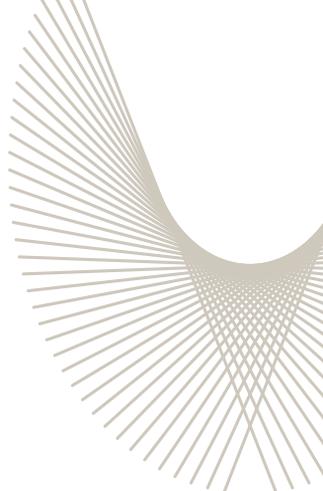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3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수상작 소개



주최 |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대학신문사

# 목 차

심사평 황선엽 07

## 수상작 소개

최우수상 새끼손가락 오영호 11

우수상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권명훈 21

장학금 이상의 장학금 신상엽 25

장려상 걸음이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아: 타고남이 아닌 꾸준함으로 윤주해 31

세계 양분이었던 장학금, 이제는 저도 기부자가 되겠습니다 이승홍 39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 임택상 45

영원히 남는 마음의 훈장 임춘자 51

제 3 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 심 사 평



## 심사평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장안의 화제이다. 평소 대중음악이든 클래식음악이든 음악과는 담을 쌓고 사는지라 웬만해서는 굳이 이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지 않았을 터인데 워낙 들려오는 말들이 많아 한 회를 보게 되었다. 작년 가을에 사석에서 만난 어느 선생님이 요즘 송가인에게 폭 빠졌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송가인이 누구냐고 했다가 어떻게 송가인을 모르냐는 핀잔을 들은 경험도 애써 (송가인을 일약 전국적 스타로 만든 프로그램의 후속인) 이 프로그램을 보게 하는 데 일조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한 회를 보고나자 금세 이 프로그램의 매력에 빠져들어 지난 회를 모두 찾아서 시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음악에 조예가 깊은 한 지인은 자신은 절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다고 했다. 요즘 경연이나 오디션 류의 음악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데 너무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면이 많아 음악 자체를 즐기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지닌 사람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높은 시청률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며 나아가 나같이 평소 음악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도 끌어들었다는 점에서 미스터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이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은 가수들의 애절한 열창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즉 좋은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가 장학금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모전을 통해 장학금을 기부해 오던 분이든 장학금의 혜택을 누리던 학생이든 관계적으로 행해지는 일에 대해 그 의미와 의의를 다시 생각해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되며 그 결과물을 통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더 많은 장학 기금을 조성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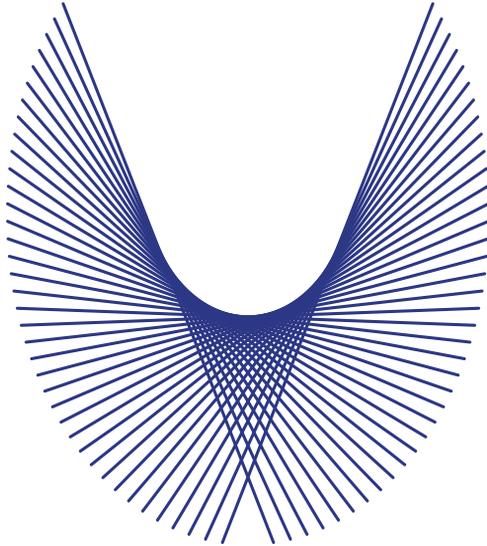
좋은 노래와 마찬가지로 좋은 글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수기 공모전의 글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심사를 하면서 표현력, 독창성, 진정성, 활용도 등의 여러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무엇보다 우선한 것은 그 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거짓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 설사 속여서 감동을 이끌어내더라도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순간 그 감동은 비난으로 곧 전환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진정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필수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진정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떠한 외적 형식으로 담아내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도는 확연히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즉 뛰어난 표현력과 사연의 독창성이 곁들여질 때 사람들의 감동은 배가될 수 있다. 이상의 조건이 갖추어진 글들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심사의 주요 과제였다.

장학금 수기 공모전이 올해로 3회째가 되었다. 올해의 심사는 어느 해보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다. 작년에 비해 응모작이 줄어서일 수도 있고 심

사가 익숙해져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글이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지에 대한 심사위원 간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모두 60여 편의 응모작 중 우선 학생 부문에서 10편, 일반 부문에서 4편을 1차로 선정한 후 이를 5명의 심사 위원이 각기 채점하여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을 선정하였다. 특히 최우수작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이름과 소속을 모두 가리고 심사를 하였고 수상작 선정 후에 명단을 통보받았다. 최우수상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인 오영호 씨, 우수상은 발전기금 직원 권명훈 씨와 자유전공학부 학생 신상엽 씨에게 돌아갔다. 명단 공개 후 발전기금 직원에게 수상을 하는 것이 괜찮겠느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 공모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직원과 같은 예로 파악하기로 하였다. 장려상은 지리학과 학생 윤주해 씨, 정치외교학부 학생 임택상 씨, 제약학과 학생 이승홍 씨와 학부모이신 임춘애 씨가 받게 되었다. 수상을 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공모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작년과 달리 유학생들이 수상자 명단에 오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한국어로 작성된 원고만 받기로 제한을 둔 탓도 있을지 모르나 작년에는 탁월한 한국어 글쓰기 실력으로 유학생들이 입상자가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시기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작품을 응모해 주시기를 바란다.

제 3 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

새끼손가락

오영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새끼손가락

나에게는 오래된 기억들이 있다.

내가 아주 작을 때 아버지와 함께 걸을 때면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을 내어 주시곤 했다. 연년생인 동생과 나는 아버지의 양 새끼손가락을 한 쪽씩 잡고 걸었는데, 내 손에 딱 차는 따뜻하고 큰 새끼손가락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다.

또 다른 기억은 네 살 경, 불이 꺼진 늦은 저녁의 피아노학원에서 피아노를 연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내가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꿈은 나를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다. 나에게 피아노를 직접 가르치시기 위해 악보를 볼 줄도 몰랐던 당신이 피아노학원에 가서 하농, 바이엘을 연습하며 피아노를 배우셨더랬다. 결국 아들을 직접 가르치겠다는 목표는 아름다웠던 목표로 접어 두고, 나는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지만 말이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음에도 다섯 살에는 나의 피아노도 갖게 되었다.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가 바로크 시대의 건축물이 이랬을까 싶은 멋들어진 곡선형의 다리를 가진 삼익 업라이트 피아노였다.

어머니의 사글세 자취방에서 신혼을 시작한 부모님은 내가 여섯 살이 되던 1996년에, 첫 집을 샀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화단이 딸린 양식 단독주택이었다. 화단이 생기고 마당에서 개도 두 마리나 키우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늘 이런 모습으로 행복할 줄로만 알았다.

어느 날부터, 항상 집에서 나와 동생을 돌봐 주시던 어머니가 아침에 집을 나서서 저녁에 들어오시기 시작했다. 학습지 회사에 출근하시기 시작한 것이었다.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녁에 다투시는 일도 많아졌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셨던 아버지는,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다. 돈이 없어 여름에도 계속 동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점심때 몰래 불러내어 하복을 사 입히고, 겨울에 외투 없이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홈플러스에 가서 겨울 파카를 사 입히던, 아버지는 그런 분이였다. 당연히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쓸 돈도 부족한데 학생들을 돕는 아버지 덕에 속이 타들어 가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우리도 없는데 계속 남만 그렇게 도와면 어떡하노?'라고 몇 번이나 물으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다. 가끔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우시곤 했는데,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이해하는 어머니가 형편 때문에 힘든 학생들을 돕는 아버지를 다그쳐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아직도 나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1998년, 사람들은 그때를 아이엠에프라 했다. 어린 나는 '다~ 아이엠에프 때문에 그란다 아이기'라고 아저씨들의 말투를 흉내 내곤 했다. 그 아이엠에프 때문에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시고, 부모님의 다툼이 많아진 것은 채 몰랐지만 말이다. 내가 훨씬 큰 후에야 알게 된 것은 당시 대출을 끼고 첫 집을 산 직후 IMF 사태가 터져,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바람에 우리 집은 교사인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는 것이다. 집값이 폭락한 상황이었지만 계속 늘어 가는 빛에 우리는 집을 되팔고 다시 월셋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신기하게도 집은 작아졌는데 빛은 늘어만 가던 시절이었다.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나는 꼬마 주제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재주가 있었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일 하나는 '왜 우리 집은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트리도 없냐'고 떼를 쓴 일이었다. 자기 집에는 진짜 나무로 된 크리스마스트리가 있다고 자랑했던 친구는 부모님이 의사인 친구였다. 이사를 간 집은 작아서 트리를 놓을 공간도 마땅치 않았는데, 어머니는 철없는 아들의 생떼가 마음에 걸렸는지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트리를 하나 좁은 거실 구석에 설치해 주셨다. 우리 집이 친구들의 집과 다르다는 것을 어렵풋하게 느끼게 된 것은 아마도 그 때부터였던 것 같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시킨 것은 피아노였다. 손을 달걀을 쥔 모양으로 만들고 그 모양 그대로 치라면서 연필을 올려놓은 뒤, 떨어질 때마다 그 연필로 손가락을 때리던 레슨 선생님은 무서웠지만 피아노는 재미있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접한 덕에 귀가 예민하고 청음이

좋은 편이었던 나는 멜로디와 코드를 따서 피아노로 옮겨낼 수 있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갈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어머니는 ‘피아노는 취미로 해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로만 알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나는 알게 되었다. 피아노를 전공으로 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집 앞의 일반중학교에 입학한 나는 방향을 하기 시작했다. 공부는 해본 적도 없고, 피아노를 전공으로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진 이상 크게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처음 이성에 눈을 뜬 나는 옆 여자중학교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를 졸라 폰이 생긴 나는 밤에는 새벽까지 여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낮에는 교실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눈을 피해 여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그런 나날을 보냈다.

이런 아들이 걱정되었던 아버지는 당신의 제자 중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한 제자에게 부탁해 아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며칠 봐줄 수 있냐는 부탁을 했다. ‘멘토링’이라는 말도 없었던 2005년 여름이었다. 나는 서울에 놀러 간다는 생각에 들떠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서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왔다. 그 형은 서울대학교를 구경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촌, 홍대, 명동 등 서울의 유명한 곳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들을 사주었다. 형을 따라 서울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꼭 오겠다는 결심을 했다.

다행히도 공부 머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은 올랐다. 물론 성적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려갈 곳보다 오를 곳이 많았던 나의

등수 덕분이었지만 말이다. 그때 처음 맛본 성취감은 고등학교에서도 나를 열심히 공부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흔히들 하는 우스갯소리로 전교 1등을 해봤다고 서울대학교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서울대 3대 바보’ 중 하나라고 한다. 전교 1등을 해 보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전교 1등을 해 본 일은 다시 생각해도 뿌듯하니 나는 아직도 바보인 셈이다.

고등학교 때에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독서실에서 매일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주무시다가도 내가 공부를 마칠 때가 되면 독서실 앞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같이 집까지 걸어오셨다. 내가 중간·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으면 아버지는 꼭 택시를 잡아서 집까지 같이 타고 오곤 했다. 택시비를 그렇게 허투루 쓸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지는 않음을 알기에 ‘집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걸어서 가죠’라고 말하는 나에게, 아버지는 ‘영호야, 돈 걱정 마래이. 니가 10분 더 자고 공부 10분 더 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말해 주셨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나는 영영 집을 떠났다. 이제 어머니는 아침에 늦잠 자는 나를 깨울 필요가 없었고,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라’, ‘잠은 일찍 일찍 자라’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한 때 어머니·아버지와 나는 하루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1년에 만나는 횡수가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자유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녹

두거리의 원룸 월세는 40만원이었고, 아무리 아껴도 생활비가 한 달에 40만원은 들었다. 등록금을 내는 것도 비슷한 집안 상황을 알기에 필요한 돈을 다 손을 벌릴 수가 없어 나는 과외를 시작했다. 여러 장학금을 신청해 보았지만,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우리 집이 이유를 알 수 없게 소득 분위가 높게 나와서 교내장학금은 거의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행정실 선생님은 아버지가 교사여서 소득이 애매하게 높게 잡힌다고 했다.

대학교 1학년이 되던 스무 살에, 학기 중에는 하나 혹은 둘, 방학 중에는 최대 8개의 과외를 하며 나는 과외 전문가로 거듭났다.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에 학교 수업에서는 전문가가 되지 못했다. B와 C로 채워진 성적표를 몇 번 받고서, 나는 입대했다. 그리고 제대하고 복학 전 고향에서 부모님과 잠시 함께 지낼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자라 청년이 되는 만큼 부모님은 노인이 되어 가고 있었음을 말이다. 더 늦기 전에 효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역시 등록금과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다. 과외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잠을 줄이고 생활비도 줄여가며 공부하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무렵,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늘 소득 분위도 애매하게 높게 나와 장학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터라,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다. 내가 기쁜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일은 더욱 기쁜 일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16대 총장 이현재' 선생님과 '동곡 이용희' 선생님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조금 덜 힘들게 버텨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용기를 얻어 공부한 후로 성적은 급상승하였고, 목표로 하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어머니가 꿈꾸던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는 되지 못하였지만, 서울대학교 로스쿨 밴드인 '로로랜드'를 만들어 서울대학교 축제에 나가는 등 음악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문득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걸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던 옛날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다. 지금은 손가락을 잡기에 많이 커버렸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직도 '새끼손가락'을 내어 주신다. 응원과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말이다.

*“시험치느라 많이 힘들제? 고생이 많다.”*

*“시험 결과가 어땠든 걱정 말고 공부해래이.”*

*“항상 좋은 음식 먹고 다녀래이. 너는 운동하니까 특히 많이 먹어야 된다.”*

*“하고 싶은 것들 다 맘껏 해라. 엄마 아빠 힘닿는 데까지는 기도하고 도와줄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이뤄온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누군가의 크고 따뜻한 '새끼손가락'을 잡고 걸어온 덕분임을 본다.

힘든 형편에도 자식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던 어머니의 새끼손가락,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자에게 연락해 아들을 한번 만나 달라고 부탁하시고, 시험 기간마다 '10분 더 자고 10분 더 공부하는 게 이득'이라고 하며 독서실에서 집까지 택시를 태워 주신 아버지의 새끼손가락, 그리고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16대 총장 이현재 선생님과 동곡 이용희 선생님의 새끼손가락, 서울법대 장학재단의 선배님들의 새끼손가락을 잡고서 나는 걸어왔다.

이 따뜻하고도 든든한 새끼손가락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차게 걸어올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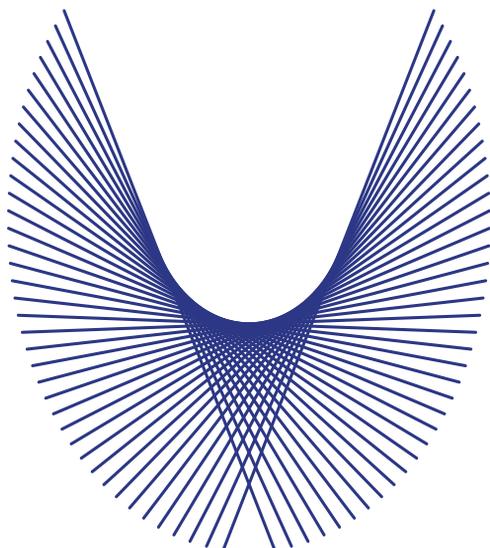
얼마 전에는 법대 행정실에서 장학금 기부 서약을 했다.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 돈을 벌게 되면 나도 내가 받아온 마음과 정성을 나누고 싶어서이다. 아직 부모님의 도움과 서울법대 장학재단의 장학금, 그리고 생활비 대출에 나의 학업과 생활을 의지하고 있어 시작은 못 했지만, 졸업 후에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도 장학금을 월정액으로 기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 나에게 맞는 기부금도 찾아 놓았다.

그렇게 나는 수많은 이들이 내어준 새끼손가락을 잡고 걸어왔고, 지금도 그들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걷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나도 세상 누군가에게 따뜻한 새끼손가락이고 싶다.

잡고 함께 걸으면 세상 든든한.

제 3 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우수상

---

#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권명훈

교내 구성원

##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움 속의 빈곤함으로 빈부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일을 하면서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름과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부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에서는 5만원을 내시면서도 얼마 되지 않아 부끄럽다고 하시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전화 주신 기부자님도 계셨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월하게 학업을 마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한 분 한 분의 따스한 손길에 힘입은 학생들은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세상으로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이 학생들이 사회 초년생이 되어 또 다른 따스한 손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다는 소박한 기부 동기를 밝히면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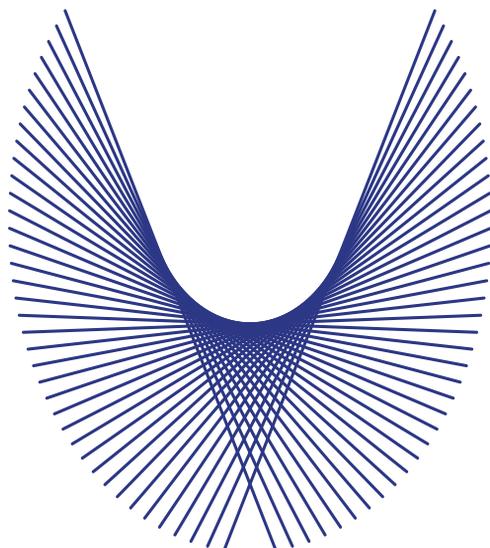
최근에 읽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를 보면 한 사람이 해외 여행길에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요금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 현지인 할머니가 대신 요

금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께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에게 갚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부해주시는 기부자님, 그리고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시간이 흘러 또 다른 기부자가 되어가는 따뜻함의 대물림. 도움을 주면서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 도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세상에서의 여행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이 받은 누군가의 사랑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를 위해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한 5만원의 기부자님과 사회 초년생의 소박하지만 따스한 손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제 3 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우수상

장학금 이상의 장학금

신상엽

자유전공학부

## 장학금 이상의 장학금

대학 합격을 두 눈으로 확인하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불안으로 떨리던 두 손은 힘이 빠져 너털거렸고, 저를 아껴주시던 모든 분께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부푼 마음을 품고 섰던 16년의 서울대학교 입학식. 행복한 순간들도 분명 많았겠지만, 제 새내기 생활은, 특히 1학년 2학기의 기억은 어두컴컴한 색으로 굳어서 마음 한구석에 박혀버렸습니다. 갓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에 이리저리 정신없이 쏘다니던 1학기가 지나고 여름과 가을이 찾아오면서 고교 시절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좌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했던 형편에 철없이 젊음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 싶었던 저는 애써 제 여건을 모른척 하고 한 학기를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매미가 울기 시작하며 제가 외면했던 현실은 통장 잔고라는 차가운 모습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의 저를 얼려버렸습니다.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3살 터울의 형이 있어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바라기에는 힘들었기에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해결책은 아르바이트 하나뿐이었습니다.

돈을 벌어 생활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를 더 얻고 바라는 것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자라난 대학 초년생에게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과 선배의 소개로 운 좋게 잡게 된 과외는 마음이 불안했던 저에게는 오히려 독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단지 서울대생이라는 사실 하나로 저에게 한 달 치 과외비 선금을 내어주시는 학부모님의 손길을 느끼며, 순간 저는 '돈을 버는 것이 참 쉬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 과외 이후로도 돈을 버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갓 입시를 치른 새내기를 원하는 손길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어느새 제 관심사는 학업과 학교생활이 아닌 각종 학원 및 과외 구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앵무새처럼 알팍한 지식을 되뇌기만 해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 주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번 돈들은 어렵지 않게 제 주머니를 빠져나갔습니다.

뒷전이 되어 버린 학교생활에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던 저에게 여러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새내기의 풋풋한 연애는 아픔과 함께 저를 떠나갔고, 밤늦게 과외를 하고 피곤해진 몸에 차마 가지 못한 수업들은 쌓여서 학기말에는 살면서 받아보지 못한 성적으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상 신호들이 저를 찾아왔음에도 이미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야겠다는 원래의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통장에 쌓이는 잔고만을 바라보는 용심만이 저를 채워버린 것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이대로 학교에 다녀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7년 2월 저는 그렇게 미련이 없어진 학교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이 끝나가는 지금 복학 후 제 1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관악에서의 이번 1년은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엉망으로 보냈던 제 새내기 생활을 뒤로하고 돌아온 관악의 교정은 새내기 때와는 다른 내음을 풍겼습니다. 과외나 학원은 더 이상 군대를 다녀온 저를 원하지 않았고 제가 쉽게 누렸던 자

리는 19년도의 새내기들이 대신 채웠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리저리 갈 곳 없이 방황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원했던 자유전공학부 근로 장학생 모집 공고에 선발된 것이 두 학기를 바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매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고,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하기도 했습니다. 근로 장학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참고 하자' 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만한 생각은 금세 사그라졌습니다. 전문위원 선생님들은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고, 그 환경에 점차 익숙해져 가며 새내기 때는 느끼지 못한 소속감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느껴가지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배려 속에서 학생으로서의 본업인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었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매달 나오자 제 마음이 안정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자유전공학부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 없는 자유전공학부의 특성상 졸업식, 수시 면접 도우미, 새내기 예비대학, 베타 캠프 등등의 각종 행사를 보조하고 진행할 인력이 필요한데, 저는 근로 장학생으로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업무 보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때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여러 행사에 참석하면서 저는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소속감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점차 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저에게 직접 주어지지 않은 일들도 보탬이 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근로 장학생을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 채우면 되기에 주어진 일에 그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이는 친구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와 대비되게 늘 무언가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자유전공학부 정직원'이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 행사들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기면서 혼자 비틀거릴 수 있었던 복학 첫 학기가 큰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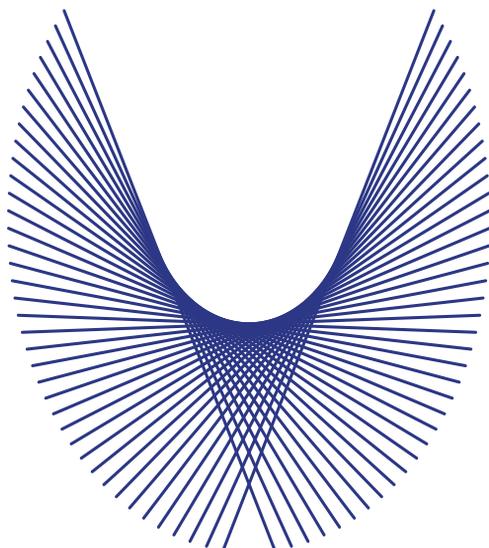
선생님께서 마련해 주신 전문위원 사무실의 작은 책상과 스탠드 하나가 학교에 대한 제 생각과, 학업에 대한 제 태도,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로 장학생 대기 장소인 220동에 늘 상주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새로 만났고, 알았던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자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된 것을 느낀 저는 무리하게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으면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저는 모든 것이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불안한 감정이 가끔 저를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느껴지기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근로 장학생 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쉽게 돈을 벌어 쉽게 쓰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필요한 만큼 돈을 벌어 그 돈을 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과정인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수직상승한

학점보다 더 귀하게 얻은 가치가 아닐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노동경제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장학금은 성적 중심에서(merit-based)에서 생활비 중심(needs-based)장학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결론을 낳는 복잡다단한 모델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저는 경험적으로 저 결론이 타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얼마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금액이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근로 장학생 장학금은 금액 이상의 금액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저를 꼭 잡아준 장학금 이상의 장학금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신입생의 제가 이런 기회들을 알았다면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하기도 하지만 금세 고개를 휘저으며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상상을 덮습니다. 배움과 따뜻함, 가끔은 후회가 묻어나는 돈이 때로는 그냥 주어진 돈보다는 더 가치 있을 테니까요.

제 3 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장려상

걸음이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아:  
타고남이 아닌 꾸준함으로

윤주해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 걸음이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아: 타고남이 아닌 꾸준함으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결과를 탐닉하지 않았는데도 큰 성취가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 불교의 신자는 아니지만, 앞선 우학 스님의 말씀은 내가 이따금씩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큰 난관에 부딪힐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실적과 결과에 연연치 않고 소신껏 내가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내가 처음으로 육지수·이광희 희망장학기금과 인연을 맺게 된 때를 돌이켜보니 벌써 1년이 흘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곧 2학년이 되어 새 학기를 앞둔 시점이었고 사실 장학생 선발이 되기 이전까지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좋지 못했다. 처음으로 경북을 떠나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숙사 지원에 떨어졌고 홀로 자취생활을 해야만 했었으며,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의 적응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또한, 적응의 문제는 뒤로하더라도 매월 지출되는 월세의 부담이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 동생 역시도 곧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두고있기에 가정의 부담을 덜고자 일단은 학업에 집중했고 외부 장학재단에 원서를 지원하기를 고대하던 시기였다.

2019년 2월 15일은 그런 의미에 있어 학업에 대한 내 꾸준함이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문자에 나는 환호성을 질렀고 이내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결과는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관철할 수 있었다. 다만, 기쁜 와중에도 외적인 액수나 수여식의 안내보다는 장학금의 명칭이 내 이목을 끌었다. ‘육지수·이광희 희망장학기금’에서 육지수 교수님은 내가 재학 중인 지리학과와 초대 주임교수로 서울대학교에 지리학과를 처음 개설한 분이자, 평생을 경제지리학을 연구하는데 힘쓴 학자이셨다. 입학 전, 호기심에 지리학과와 홈페이지를 방문했었고 직접 석전(石田) 육지수 교수님의 사진을 보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미 50년 전에 별세하신 교수님의 존함이 장학금에 담겨 있음에 의아함을 느꼈던 것이다.

내게 있어 해당 장학금과 관련된 하나의 소중한 일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흔쾌히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이광희 동문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2월 25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측에서는 장학생과 이를 후원해주신 기부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주선해주었는데, 여기서 나는 희망장학기금의 명칭에 육지수 교수님의 존함이 명시된 이유와 이광희 후원자님의 개인적인 일생 및 인생관에 관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59학번으로 지리학과에 입학하신 이광희 동문님께서 재학 시절부터 진로와 교육에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은사 육지수 교수님을 존경했었다. 그러면서 내 물음에는 곤란에 빠진 이들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철칙을 강조하셨던 은사님을 기리기 위해 장학기금의 이름을 지은 것이라 답변해주셨다. 후원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에 앞서 다른 사람을 두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장학금에 관철된 기부자님의 뜻과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광희 동문께서는 대화 내내 ‘성실’과 ‘겸손’의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실천력이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실제로 장학금을 선발하는 기준에서도 외적인 ‘결과’보다는 내적인 ‘성실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역설하셨고 한국관광공사에서 30년간량을 근무하신 경험을 통해 조직 내에서의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셨다. 서울대학교라는 학벌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 재능을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화 간에 오가면서 그렇게 동문님과 나의 짧은 만남이 마무리되었다.

동문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게 지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장학금의 설립 배경과 명칭의 연원을 알게 된 후로, 내가 과연 해당 기금에 부합한 학생인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되었다. 평생을 지리학을 탐구하고 학제를 개편하는데, 힘을 쏟으신 육지수 교수님과 달리 나는 지리학과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공의 탐구에 있어 회의적이었다. 지적 호기심에 입각해 선택한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불리하며, 쇠퇴하는 학문이라 판단했기에 1학년 때 의도적으로 전공을 피해 수업을 들었고 그 와중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

했더라도 학문의 가치에 차등을 두어 선택적인 탐구를 감행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다.

두 번째로 동문님과 대화의 통해 각인한 ‘성실’과 ‘겸손’의 원칙이 그동안의 내 생활에 있어서 지켜졌는지에 관해 반성할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학업에 임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전공을 의도적으로 피한 선택적인 성실이었다. 더불어 겸손함에 있어서도 내가 부족한 학생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장학생에 처음 선발되었음에 크게 기뻐하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음에 만족했었다. 하지만 돌아켜보니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고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비단 지리학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학계를 선도하는 서울대학교에는 저마다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고 가치를 도출하는데 노력하는 유수의 학생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내가 결국 장학생으로 선발된 데에는 큰 행운의 요소와 노력이 외적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지, 이것이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님을 몸소 이해할 수 있었다.

동문님과 만남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그리고 반성은 내 생활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2학년이 되어서는 지리학의 목적이 ‘땅 자체가 아닌 인간의 해명’에 있다는 의식을 관철한 채 매 수업마다 지리학 탐구에 매진할 수 있었고 동료들이 이따금씩 수업 내용이 흥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수강 취소를 할

때에 나는 결코 단 한 번도 수업을 취소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단지 방식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수업 들은 궁극적으로 진리 탐색이라는 목적지로 나를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단 하루라도 헛되게 보낸다면 나대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라 여겼기에 의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영위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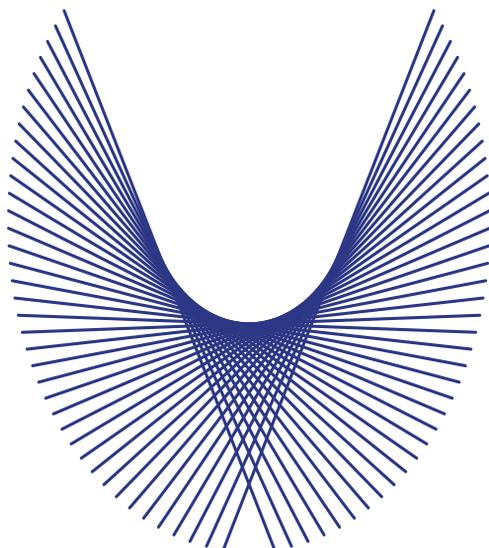
치열했던 1학기를 보내고 끝날 것만 같았던 나와 육지수·이광희 희망장학기금의 인연은 2학기가 되어서도 이어졌다. 역시 단지 내가 뛰어나고 타고난 학생이 기보다는 후원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열심히 학업에 임했던 노력을 인정해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한 내 마음을 담아 이광희 동문님을 위한 손 편지를 작성했고 동문께서도 내 편지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답장을 전해주시며, 장학금을 받았던 여러 후배들과 식사를 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나눌 것을 기약하셨다.

다시금, 첫눈을 맞이한 12월이 되니 장학금을 처음 받았을 때와 그로부터 내가 성장해온 과정이 문득 눈앞에 아른거린다. 물론, 이전의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다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겉으로는 말했으나 속으로는 등록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야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육지수·이광희 희망장학기금에 선발되고 이광희 동문님을 직접 만나 내가 받은 장학금의 기원과 내막을 알게 된 후로, 더 이상 그런 마음가짐을 지녀서는 안 됨을 직감하였다. 걸음이 조금 느리고

과정이 순탄치 않더라도 정도와 원칙을 지키면서 매사에 매진하다 보면 언젠가 결과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오로지, 결과에만 목숨을 걸고 매달려서는 내가 걸어온 발자취와 과정을 잊어버린 채 작은 것에 연연하여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원대한 목적지와 결과를 염두에 두어 무릇 일이 빠르고 원활히 진행되기를 갈구하는 경향이 있다. 걸음마가 다소 느리고 어설피다고 이를 닦달하다 보면 아이는 더 큰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꾸준함이다. 소중한 만남과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성과와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끝으로, 내가 재학 중인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와 기초를 닦아주신 故 육지수 교수님과 참된 삶의 방향성을 일깨워주신 이광희 동문님, 그리고 나와 이들 간의 매개가 되어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제 3 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장려상

제게 양분이었던 장학금,  
이제는 저도 기부자가 되겠습니다

이 승 흥

약학대학 제약학과

## 제게 양분이었던 장학금, 이제는 저도 기부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곧 졸업을 앞둔 학부 6학년 재학생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랑스럽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진학하고, 자랑스럽게 입학증을 수여받은 날의 기쁨은 아직도 저의 최고의 기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꿈이었던 서울대학교에 진학의 기쁨도 잠시, 저는 곧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휴학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저의 손을 잡아 준 것은 서울대학교 선한 인재 장학금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장학금 수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장학 수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는 오랜 실직으로 마땅한 직업을 구하시지 못하시고 불규칙적으로 일용직 청소부, 식당일, 건축업 등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항상 일을 하실 수는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대부분 어머니 혼자 벌어들여 오시는 적은 돈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네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부모님께서 돈 문제로 자주 다투셨던 기억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꿈과 희망, 사회에 대한 봉사에 대해 배웠지만 그 시절의 저는 그런 단어들과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고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돈을 벌러 나가시고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며 집안일을 하

고 있을 때면 낯선 채권자 아저씨들이 문을 두드리며 저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외식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밥은 자주 집 근처의 사회 복지관에서 쌀을 한 달에 2포대씩 받아서 지어먹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시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의 얼굴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생활고 문제로 많이 지치신 부모님을 제 힘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으로써 가장 열심히, 그리고 즐기며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다닐 여유가 없었고, 여러 책들을 사기도 부담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꼭 필요한 문제집만 사고 나머지는 친구들이 푸른 문제집을 받아 내용을 지우고 다시 푸는 식으로 극복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저는 결국 해냈습니다. 제가 간절히 입학하길 바라왔던,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자 부모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고는 힘들었지만, 공부를 통해 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도 성장할 수 있으면서, 항상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를 선물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노력과 성실함을 통해 당당히 극복했던 경험은 그 이후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록 제가 진학하고 싶었던 대학교의 일원이 되었지만, 공부하면서 많은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성적도 나오지 않았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상경해서 자취를 하면서 살다 보니 항상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전혀 받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대신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우선적으로 자취방 월세와 통신비를 내고 나면 그것마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전공 책은 한 권당 10만원이 넘어가서 사지 못했고 과외,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려고 하니 오로지 학업에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우연한 기회로 서울대학교 선한 인재 장학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간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신청했던 장학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선정일, 떨리는 마음으로 장학생에 선정되었음을 확인했고, 생활비 장학금을 수혜 받았을 때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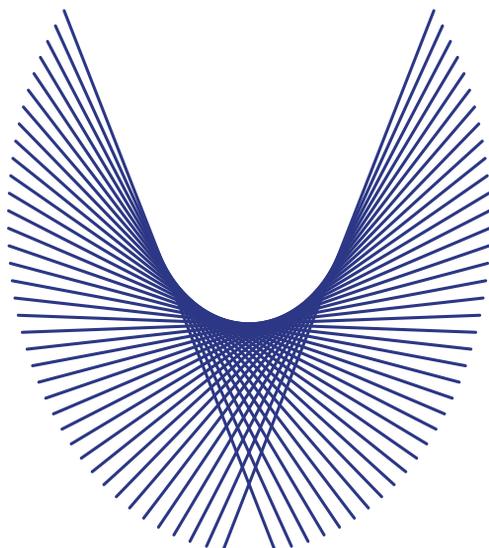
장학금을 수여받고 나서 저는 과외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오로지 '저 자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제가 진학하고 싶었던 실험실에 인턴을 했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교내 봉사동아리 드림컨설팅트에서 진행하는 드림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먼 미래에 인류의 질병을 타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는 연구자가 되어 있을 제 모습을 항상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고,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적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19학년도 1학기에는 평점 4.3을 받았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영어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소에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싶었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영어 회화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나니 이제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인해 저는 저를 항상 몰아 매고 있던 '가난'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제가 항상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며 노력할 수 있는 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막연히 그렸던 약학 연구자에 대한 꿈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꿈에 대한 첫 하나의 발걸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제학 대학원에 진학해서 약학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약물동태학(PK, Pharmacokinetics)을 자세히 배워서 기존의 약물들의 반감기, 부작용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몇몇 항암제들은 종양조직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까지 비특이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암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을 때도 정맥을 통해 침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부작용도 심해서 탈모, 항암제 유발 오심·구토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부작용 없이 좀 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신약의 전달체를 개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특히 분자적 단위에서 목표 조직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내년 2월, 당당히 서울대학교의 졸업생으로써 발돋움을 내딛게 됩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제게 장학금을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제게는 단순히 '생활비'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의 한계를 떨쳐 내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학금의 가르침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인재로 성장해서 모교와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이 아닌,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3 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장려상

---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

임택상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

2018년 여름, 군 복무를 마치고 녹음이 짙어진 관악으로 돌아오게 된 저의 마음은 사실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근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중단했던 학업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다시 대학 생활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1학년 때는 감사하게도 지역 장학재단의 지원 등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과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군 생활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장학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복수 전공을 이수하기 시작하여 학업의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과외나 기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부모님께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서는 대학 입시까지 저를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하셨고, 운영하시던 자영업 또한 이미 정리하신 상태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너무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방법은 오로지 학업에 집중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업에 매진한 후에 교내 성적 우수 장학금 혹은 외부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고, 열심히 노력하여 복학 후 첫 학기에서 평균 학점 4.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 겨울 학과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신양장학재단의 신규 장학생 신청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였고, 감사하게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19년 1, 2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학금은 단순히 그러한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장학금은 저의 학업에 있어서 '선순환'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獎學金)이 학업을 장려하는 목적을 지닌 것처럼, 장학금을 받은 이후로 저는 더욱 학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학년 2학기에 이어 3학년 1학기에도 평균 학점 4.3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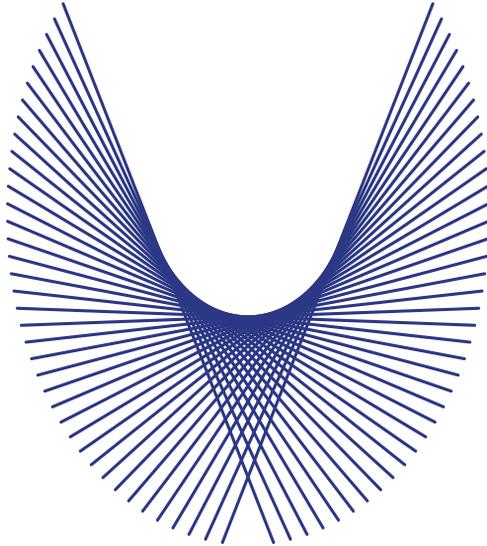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학업 성취보다도 장학금이 제게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목표 의식의 설정, 그리고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였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학업에 대한 목표 의식이 크게 흔들렸었고, 그 원인은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지 못해 방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양 문화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에서 故 정석규 선생님께서 기업을 운영하며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면학에 열중하지 못하는 젊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비단 장학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훌륭한 교수님, 학생들과 함께 배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로부터 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 제가 받은 여러 도움들을 사회에 환원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유명한 시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제 노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학금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게 된 후,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미래’라는 거대한 책임이나 혼자 짊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소외된 이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새로운 삶의 목표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저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준 여러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 덕분이며 제가 받은 도움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제가 다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신앙장학재단의 장학금 외에도, 현재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OIA)의 장학금을 받고 국립 대만대학교(National Taiwan University)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입생 시절부터 교환학생은 제 대학생활의 큰 목표 중 하나였는데, 금전적인 측면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던 중 국제협력본부의 교환학생 대상 장학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장학금을 받게 되어 큰 금전적인 부담 없이 대만에서 교환학생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동아시아 연구라는 저의 큰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받게 된 다양한 장학금들이 결코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러한 지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 사회의 소외 계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 봉사를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장학금은 경제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을 크게 바꿔주었고, 향후 어떠한 일에 종사하게 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소중한 기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3 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장려상

영원히 남는 마음의 훈장

임춘자

동문(윤군) 어머니

## 영원히 남는 마음의 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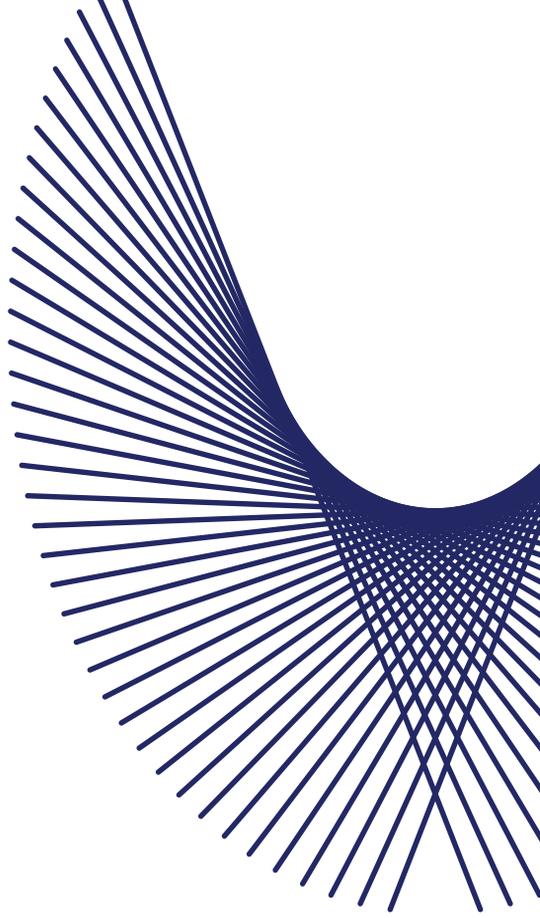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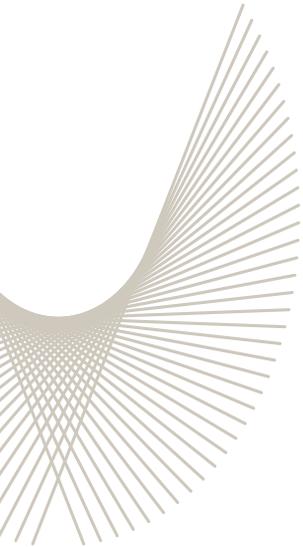
아들의 친구들은 아들을 놀릴 때면, 너희 어머니는 대학교도 미국 유학도 전부 다 무상 교육인 줄 알고 계시지!라고 한단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은 그 힘든 명문대를 과외도 학원도 없이 힘들게 어렵게 들어갔거니와 들어가서도 온갖 장학금을 다 받으면서 대학시절과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까지도 전액 장학금으로 살아왔으니까. 사실 내가 아들에게 장학금 받기를 바랐던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인생에 오점을 남기면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직장에서도 잘한 일이나 잘못된 일에 따라 상이나 벌을 받듯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아들 학적부에 기재가 될, 영원히 남는 훈장과도 같고 인생이 끝나도 길이 남을 화석과도 같은 것이기에. 남들은 한 번도 어렵다는, 더구나 요즘 세상에서는 그 장학금조차도 자기 실력이 아닌 잘난 부모의 뒷배경이 작용한다는 시대에, 평생을 장학금으로 살아온 아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한 듯싶어 미안하고 대견한 맘이 든다.

그런데도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다행스레 바르게 자란 아들은 총장상, 원상, 뭇 상, 수많은 상을 받았어도 그중 가장 행복한 상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라고 인터넷에 글을 썼던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릴 적부터 아들에게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상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었기에, 평생을 장학금으로 살아온 인생이니, 이제는 장학금을 주는 인생으로 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이야 밥 굶는 사람도 없거니와 우리 시절처럼 등록금을 위해 소를 팔고 땅

을 피는 대신에, 본인이 주경야독으로 과외며 온갖 아르바이트 전선에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그래도 대학의 본분이, 학문의 정진과 인격 수양이라는 상아탑의 사명임을 생각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을 뺏기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의 주경야독 학생들을 위해서, 받은 만큼의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아들이 되길 바란다. 은혜도 원수도 갚아야 하지만, 원수는 갚는 게 의무지만 은혜는 갚는 게 선일 테니 푹푹하고 바른 내 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그동안 내 아들에게 수많은 장학금을 안겨줬던 하나하나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열심히 노력하는 아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큰 은혜를 베풀어준 그분들 덕분에,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나 역시도 아들 하나 보며 웃으며 살수 있었기에. 이제 내 아들이 베풀 선한 행동으로, 앞으로 또 많은 이 땅의 힘든 어머니가 웃음 속에 일생을 자랑으로 행복으로 살 수 있기를. 오늘도 뉴스에선 험악한 일이 가득하지만 두건의 장학금 관련 뉴스가 나온다. 사업으로 성공하여 크게 부자가 된 이의 자녀들이 30여 년 전 돌아가신 부친을 기려 부친 모교에 큰돈을 기부했다는 이야기와 형편이 어려워 대학도 못 가고 결혼도 안 한 채 혼자 일찍부터 돈을 벌던 여자가 이른 나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과는 연고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뉴스. 둘 중 어느 것이 낫고 못함은 없다. 베푸는 것은 선이니까.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전화 02-871-8004 | 팩스 02-872-4149 | 이메일 snuf@snu.ac.kr | 홈페이지 www.snu.or.kr